



## 제관업계 동향

### Supply and Demand of Metal Can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자료 제공

캔을 이용한 통조림산업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1892년경이지만 국내 최초로 식품용 금속캔을 생산한 것은 1939년 일본인에 의해 부산 영도 청학동에 설립된 『조선제관(현, 한일제관 전신)』이다.

이후 광복과 고난의 50년대를 지나 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제관업이 포장용 기산업으로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맞게 된다.

그 하나가 1967년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에 김치와 콩치, 쇠고기야채통조림이 담겨진 K-레이션과 국산 캔맥주가 공급되면서 지속적인 설비증설과 기술개발이 이뤄졌고, 이는 제관산업 발전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의 계기는 1970년대에 들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지원책’으로 양송이 버섯통조림과 굴 통조림 수출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여 제관설비가 풀가동하는 호황기를 맞게 되면서다.

이후 8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 제관산업이 통조림관 위주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맞게 되

었는데 바로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이다.

이 양대 국제 스포츠행사를 전후로 제관업계는 세계적 제관사와의 합작, 기술제휴를 통해 고속화된 최신 설비도입이 러시를 이뤘으며, 이를 통해 대량생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캔음료의 대중화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렇듯 국내 제관산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대적 변화에 적극 적응하며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IMF시절 10여 업체가 도산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고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말할 수 없는 산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난해 금속캔 시장은 80억 7500만 관으로 2012년에 비해 4억 5600만관이 늘어난 6%의 신장률을 기록했지만 신장을 견인한 것은 알루미늄캔 음료이다.

알루미늄 음료캔을 생산하는 업체는 4개사로 분당 1400~1800관을 생산할 수 있는 고속설비만 15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90억 관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 가동률은 70%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2013년도 금속캔 판매실적 비교(내수, 수출포함)

(단위: 백만 개)

구 분			2013	2012	2011	2010		
음료관	알루미늄	2PCS	맥주관	1,714	1,585	1,385	1,221	
			탄산관	1,521	1,389	1,306	1,290	
			커피관	817	869	798	584	
			쥬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1,716	1,476	1,457	1,523	
		계	5,768	5,319	4,946	4,618		
	스틸	2PCS	맥주관					
			탄산관	8				
			커피관	325	365	301	383	
			쥬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268	236	197	197	
			소 계	601	601	498	580	
		3PCS	탄산관					
			커피관	53	38	97	95	
			쥬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88	99	122	176	
			소 계	141	137	219	271	
		계		742	738	717	851	
		합 계			6,510	6,057	5,663	5,469
		통조림관	농산물		71	60	105	116
수산물			447	466	589	577		
축산물			195	196	142	107		
합 계			713	722	836	800		
분유관	분유		27	27	24	24		
미술관	제약관 및 기타		1	5	3	3		
에어로졸	에어로졸, 부탄		594	592	542	510		
일반관	0.5~20 l 관		230	216	225	225		
총 계			8,075	7,619	7,293	7,031		

이중 14개 라인에서 알루미늄캔이 생산되고 있으며, 1라인만 D&I스틸 음료관을 생산하고 있다. 가동 설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알루미늄캔의 성장세가 놀라울 정도다.

세분화된 통계가 만들어진 1994년의 알루미늄

음료캔의 점유율은 25.7%인 1억2110만관이었으나 20년이 지난 지난해인 2013년에는 57억 6800만관으로 음료캔의 89%를 알루미늄캔이 점유하는 등 성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국내 제관산업의 발전과 성장의 중



## 특 집

심에 있었던 스틸3피스 음료캔은 일부 커피캔이나 전통음료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알루미늄 음료캔의 급부상은 2008년과 2010년에 걸친 스틸원자재 가격폭등에서 기인한 제관업체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진다.

금속캔의 분류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 제관업체에서는 편의상 맥주 및 주류관을 포함한 음료관, 통조림관, 미술관, 에어로졸·연료관(휴대용부탄가스), 일반관등 5종류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 중 1979년 우리나라에 보급된 휴대용부탄가스는 내수는 다소 줄었지만 일찍부터 글로벌 판매망 구축에 힘써 온 업계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19%가 증가한 2억 2500만 관 정도가 수출되어 1억7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쾌거를 이룩했다.

특히 한국산 휴대용부탄가스는 품질에서 외국 수요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수출전망을 한층 밝게 해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통조림관이나 일반관은 원료난과 수요업종 경기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통조림은 시장이 줄었고 수산물 통조림캔의 주종인 참치는 어족자원보호로 통조림가공용 어획량이 감소됐으며 고등어는 원료가 없어 통조림을 만들 수 없는 원료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도 런치미트를 포함한 육제품은 지난해 1억9500만개가 판매됨에 따라 향후 그 수요는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그나마 침체된 통조림시장에 활력소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일반관이라고 칭하는 금속캔은 0.5~20l 까

지의 식용유, 과당, 장류 등의 식자재나 페인트, 신나 등의 화공품을 포장하는 용기다. 국내 제관업체 중 일반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80%로 이중 3~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관 중 주류를 이루는 18l 관의 용도별 수요는 대체로 40%가 식자재용기이고 페인트 등이 35%를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페인트관 제조에 많은 중소 제관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페인트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주택건설이나 조선(선박)업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까지도 조선업 등 관련산업 침체가 페인트관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다 기능성 개발제품을 활용한 제관업체간 과열수주까지 겹쳐 중소 일반관 생산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도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이 살아나고 페인트 수요가 많은 대형 컨테이너와 벌크선의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 일반관 생산업체도 큰 수혜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ko]

월간 포장계는 포장업계에 유익한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및 광고 문의는  
(사)한국포장협회 편집실로 해주십시오.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